

국어영역 (B⁺A형) 2016^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현대시/고전시가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기출 수능 역추론

원리와 사고방법

& 실전문제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6^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현 대 시 / 고 전 시 가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 기출수능에서 역추론한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실전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시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한 눈에 보기로 제시
- 시구 자체를 이용해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한 시 해석력 높이기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 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를 거쳐 현재 문현고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언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차용택 선생님

서울 언남고, 신림고, 함양고를 거쳐 현재 진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링크 실전편 집필(공저, 천재교육 간행)
대한 교과서 실전모의고사 집필(공저, 대한 교과서 간행)
독서 평설 집필(공저, 지학사 간행)
블랙박스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현대시/고전시가편

지은이 | 이성호, 차용택

이 책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 파일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 파일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능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언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모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이 96년 가을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함께 근무한 1년 반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고, 근무지가 달라진 1년 동안에는 통신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교실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면을 만들어 갔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 2판에 붙여

'98년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정 2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철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현대시/고전시**가 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 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또 시마다 그림과 도식을 이용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를** 넣어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구 자체를 이용해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한 시 해석력 높이기**를 두어 **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 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두 지은이 이성호, 차용택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1. 반어, 역설·모순 형용, 풍자, 표현 기법과 발상 12

유형모의1-1 길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시 해석력 높이기•38	34
유형모의1-2 꽃을 위한 서시 / 폭포 시 해석력 높이기•44	39
유형모의1-3 승무 / 국화 옆에서 시 해석력 높이기•49	45
유형모의1-4 여부가 시 해석력 높이기•53	50
유형모의1-5 우부가 시 해석력 높이기•57	54
유형모의1-6 사리화 / 구름이 무심(無心)한 말이 / 냇가의 해오랏마 시 해석력 높이기•61	58
유형모의1-7 못 잊어 / 오늘도 고향은 / 농무 / 뒷뜰에 동난지이 / 눈 / 벽모의 묘 시 해석력 높이기•68	62

2. 상징 70

유형모의2-1 아버지의 마음 / 가정(家庭) 시 해석력 높이기•88	83
유형모의2-2 까치밥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 해석력 높이기•93	89
유형모의2-3 누룩 / 연탄 한 장 시 해석력 높이기•99	94
유형모의2-4 규원가(麗園歌) 시 해석력 높이기•103	100
유형모의2-5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처용가 시 해석력 높이기•107	104
유형모의2-6 찬기피랑가 / 목마와 숙녀 / 간 시 해석력 높이기•112	108

3. 심상 113

유형모의3-1 길 /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시 해석력 높이기•123	119
유형모의3-2 강(江) 2 / 벼 시 해석력 높이기•128	124
유형모의3-3 만가(萬歌) -애(哀)소리 시 해석력 높이기•133	129
유형모의3-4 모죽자랑가(慕竹竹郎歌) / 곡재(哭子) 시 해석력 높이기•138	134
유형모의3-5 십자가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전원(田園)에 남은 흥(興)을 시 해석력 높이기•143	139

차례

8. 비평 관점과 올바른 감상	299
유형모의8-1 개봉동과 장미 / 그 여름의 끝 시 해석력 높이기•324	320
유형모의8-2 타는 목마름으로 / 꺾대기는 가라 시 해석력 높이기•329	325
유형모의8-3 봉선화가 시 해석력 높이기•334	330
유형모의8-4 정과정(鄭瓜亭) / 개미 불개미 시 해석력 높이기•339	335
유형모의8-5 광야 / 울릉도 / 성북동 비둘기 / 하우요(夏雨謠) 시 해석력 높이기•345	340
9. 표현상의 특징	347
유형모의9-1 휴전선(休戰線)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시 해석력 높이기•385	381
유형모의9-2 눈 / 가을의 기도 시 해석력 높이기•389	386
유형모의9-3 속미인곡 시 해석력 높이기•394	390
유형모의9-4 창 내고자 / 어이 못 오던가 / 나모도 바하들도 시 해석력 높이기•399	395
유형모의9-5 혼몽 / 산촌에 밤이 드니 시 해석력 높이기•403	400
유형모의9-6 나의 침실로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 해석력 높이기•408	404

제2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종합실전모의 제1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머슴 대길이 / 삼진강 고공가	410
종합실전모의 제2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해바라기의 비명(磯鳴) / 귀천 제비가	418
종합실전모의 제3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바다와 나비 / 겨울 바다 영립(詠笠) / 어부가(漁夫歌)	426
종합실전모의 제4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낮은 우물이 있는 풍경 / 청포도 면양정가	435
종합실전모의 제5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오렌지 / 연시(軟柿) 빈녀음 / 시집살이 노래	443
종합실전모의 제6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작은 짐승 / 성탄제 견회요 / 개미 불개미	452
종합실전모의 제7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풍장 ¹ 사미인곡	460

제3부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문제가 끝난 다음 쪽에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해설과 정답**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가. 모든 시의 해설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표현상의 특징

-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으로써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 언어의 조탁으로 정갈하고 정확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 흐름소리인 '리'를 많이 사용하여 부드러운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말을 갈고 다듬어 언어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면서 미지의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주제 내 마음을 알아줄 한 그리움



1.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모든 시의 구조와 주제를 그림과 도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표현상의 특징

각 시의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수능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태로 밝혀 수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3. 시 해석력 높이기

시구 자체를 이용하여 내재적으로 시를 풀이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가 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제1부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2 원리는 이렇다

3 방법은 있다

06 형상화 [예제]

5-2 운 울 [유형모의]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기출 수능 문항에서 역추론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 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 있다로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다. 제2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현대시, 고전시가의 신경향·고난도 문항을 대폭 수록하여 앞에서 배운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정답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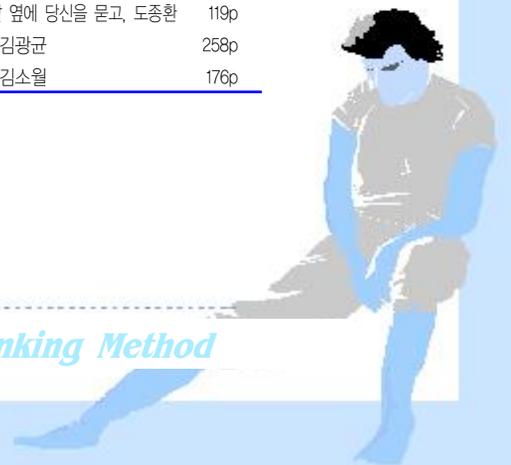
모든 문제를 방법은있다 방식으로 풀이하여 방법은있다고 외우지 않아도 방법은있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명별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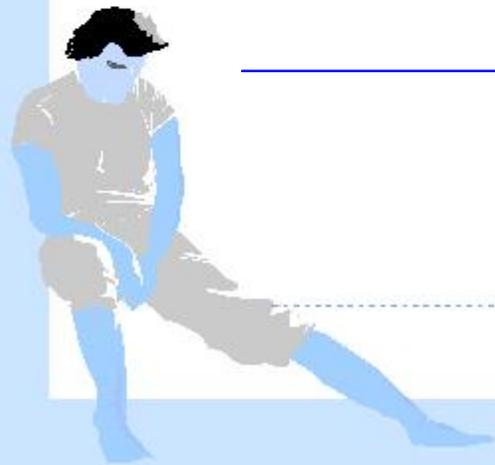
가나다순

● 현대시						
● ㄱ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316p	낙화, 이영도	351p	불국사, 박목월	349p	
가을의 기도, 김현승	358, 386p	낙화, 이형기	366p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405p	
가정, 박목월	84p	낮은 우물이 있는 풍경, 김중환	435p	뽕디기, 서정주	14p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82p	낮은 집, 이운악	260p	● 人		
간, 윤동주	110p	낮은 집, 최두석	306p	사랑, 김수영	359p	
강 2, 박두진	124p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140p	사경, 김수영	258, 296p	
개봉동과 장미, 오규원	320p	남으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208, 213p	사슴, 노천명	293, 401p	
겨울 바다, 김남조	426p	내 마음을 아실 이, 김영랑	77p	사평 역에서, 객재구	218, 364p	
고고, 김종길	374p	내가 만난 이종섭, 김춘수	75p	산 너머 남촌에는, 김동환	369p	
고사, 조지훈	349p	농무, 신경림	63p	산, 김광섭	215p	
고풍, 신석초	347p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중삼	89p	산·9, 김광림	446p	
고향 앞에서, 오장환	306p	누룩, 이성부	94p	산도화 1, 박목월	113, 249p	
광야, 이육사	340p	눈, 김수영	65, 386p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299p	
교목, 이육사	243p	눈물, 김현승	274p	살구꽃, 김억	185p	
구두 한 켤레의 시, 객재구	312p	님의 침묵, 한용운	371p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규원	367p	
구두, 송찬호	303p	● ㄷ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35p	
구성동, 정지용	244p	당신의 무덤가에, 도중환	348p	서시, 윤동주	80, 250p	
국화 옆에서, 서정주	45, 71p	도다리를 먹으며, 김광규	160p	석문, 조지훈	267p	
귀뚜라미, 이원섭	356p	들길에 서서, 신석정	224, 373p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25p	
귀천, 천상병	418p	떠나가는 배, 박용철	223p	설날 아침에, 김종길	269p	
귀족도, 서정주	81p	또 다른 고향, 윤동주	295p	섬진강1, 김용택	411p	
그 나무, 김명인	25p	● ㄹ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341p	
그 여름의 끝, 이성복	320p	마음의 고향 6- 초설, 이시영	368p	성애꽃, 최두석	302p	
그의 반, 정지용	354p	맹인 부부 가수, 정호승	218p	성탄제, 김종길	453p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사람, 신동엽	267p	머슴 대길이, 고은	410p	승무, 조지훈	45, 153p	
길, 김기림	119p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207p	시대의 꿈, 박노해	301p	
길, 김소월	34p	모춘, 오장환	354p	십자가, 윤동주	139p	
깃발, 유치환	179p	목계 장터, 신경림	357p	● ㅍ		
까치밥, 이성부	89p	목련이 봄비에, 장성수	350p	아니오, 신동엽	358p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247, 326p	목마와 숙녀, 박인환	109p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83p	
꽃, 이육사	157p	묵숨, 신동집	164p	엄마 걱정, 기형도	378p	
꽃담불, 신석정	193p	못 잊어, 김소월	62p	여승, 백석	355p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39, 445p	● ㅂ		연시, 박용래	444p	
● ㄴ			바다와 나비, 김기림	237, 426p	연탄 한 장, 안도현	94p
나그네, 박목월	81p	바위, 유치환	246p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62p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77p	버, 이성부	124p	오랑캐꽃, 이운악	294p	
나뭇잎 하나, 김광규	371p	벽공, 이희승	353p	오렌지, 신동집	41, 443p	
나비와 광장, 김규동	237p	벽모의 묘, 황석우	66p	오월, 김영랑	355p	
나비의 여행 -아가의 방 5, 정한모	165p	붉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184p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도중환	119p	
나의 가난은, 천상병	269p	붉은, 신동엽	126, 244p	와사등, 김광균	258p	
나의 침실로, 이상화	404p	봉황수, 조지훈	223p	왕십리, 김소월	176p	
낙타, 이한직	454p					



작품명별 찾아보기

외할머니의 뒤안 틈마루, 서정주	75p			봉선화가, 작가 미상	330p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78p			북찬가, 이광명	155p
울릉도, 유치환	340p			북창이 맑다카늘, 임제	23p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박재삼	460p			빈녀음, 허난설헌	447p
유리창, 정지용	37p			사리화, 이제현	58p
윤사월, 박목월	213p			사모곡, 작가 미상	288p
은수저, 김광균	274p			사미인곡, 정철	32, 463p
이별가, 박목월	318p			산촌에 밤이 드니, 천금	400p
인동차, 정지용	375p			상사곡, 박인로	253p
				상춘곡, 정극인	256p
				성산별곡, 정철	255p
				속미인곡, 정철	263, 390p
				시집살이 노래, 작가 미상	230, 447p
				안민가, 총담사	233p
				야청도의성, 양태사	174p
				어부가, 이현보	50, 429p
				어이 못 오던가, 작가 미상	395p
				연행가, 홍순학	174p
				영립, 김병연	429p
				옛날 석가모니불이, 일연	33p
				용부가, 작가 미상	228p
				우부가, 작가 미상	54p
				유산가, 작가 미상	284, 380p
				울리유곡, 김광욱	257p
				이런들 었더하며, 이방원	245p
				일동장유가, 김인겸	170p
				전월에 남은 흥을, 김천택	141p
				정과정, 정서	335, 456p
				제망매가, 월명사	317p
				제비가, 작가 미상	421p
				찬기파랑가, 총담사	108, 288p
				창 내고자 청을 내고자, 작가 미상	395p
				처용가, 처용	104p
				천만리 머나먼 길히, 왕방연	152p
				청산별곡, 작가 미상	158, 209p
				청초 우거진 골에, 임제	152p
				춘면곡, 작자 미상	372p
				하우요, 윤선도	343p
				한거십팔곡, 권호문	259p
				한숨아 세한숨아, 작가 미상	248p
				훈몽, 이옥봉	400p
				흥망이 유수하니, 원천석	3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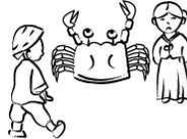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현대시·고전 시가 해석법

1. 현대시와 고전 시가는 주관적인 글이므로 서정적 자아가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왜 그렇듯이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살핀 다음 지엽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심 제재에 대하여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가를 파악해 본다.
4. 시적 화자의 처지나 상황,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해 본다.
5. 표현상의 특징(운율, 표현 기법, 어조, 화자의 태도 등을 알아보고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는가 알아본다.
6. 시의 구조(선경후정, 수미상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기승전결, 기서결, 연상적 구성, 열거식, 인과적 구성 등)가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7. 사용된 시어의 특징과 관습적·원형적 상징 의미를 알아본 후 이들의 의미가 문맥에서 알맞은가 생각해 본다.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p>북새(北塞)로 가는 이사꾼 짐짝 위에 말없이 함박눈이 잘도 내리느니.</p>	 <p>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p>
 <p>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짓이라 호렴은.</p>	 <p>이애, 너의 온갖 오뇌, 운명을 나의 꿈은 샘 같은 애(愛)에 살짝 삶아 주마.</p>

반어, 역설, 풍자, 표현 기법

시에서는 사물을 더 명확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말을 꾸미는 기교나 사고 방식으로 반어, 모순 형용·역설, 풍자, 비유 등의 문학적 기교가 많이 사용되는 데 이것을 구별하여 찾아내거나 그 효과와 거기에 담긴 의미나, 필자의 의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2 원리는 이렇다

(1) 반어(反語, irony)

표현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 따라서 반어적 표현에는 ‘말한 것’과 ‘의미한 것’ 사이의 긴장, 대조, 혹은 갈등이 담겨 있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인상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운나게 굴리던 /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 문정희, 겨울 일기

▶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아무 일도 못하고 가슴 아프게 지냈다’는 의미의 반어이다.

예문보기

아침 저녁으로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기형도, 안개

▶ ‘희고 아름다우며’는 하얗게 병든 모습을,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는 ‘고생 속에 어렵게 자라’를 의미하는 반어이다.

예문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는 고이 보낼 수 없는 심정을 담은 반어적 표현이다.

예문보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말이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 적어도 그때까지는 못잊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2) 역설·모순 형용

- ① 역설(逆說, paradox) : 겉으로 보면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한 표현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 방식인데 심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모순 형용이 앞 말과 뒷 말 사이의 언어적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역설은 내용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대로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독자의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 이성부, 벼

▶ '죄도 없이 죄지어서'는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일면 부정한 권력에 누명을 써서 죄를 지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말소리에 귀먹고',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등은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실제로 임의 목소리만 들리거나 임의 얼굴만 보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신경림, 농무(農舞)

▶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칫 반어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춤이란 슬픔 속에서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으므로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이런 경이(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 김수영, 현대식 교량

- ② 모순 형용(矛盾形容, oxymoron) : 모순 형용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말의 병치(並置)로 특수 효과를 얻으려는 시의 기법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모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술 방식인데 표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나스텔지아의 손수건

— 유치환, 깃발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이 못 되고 아우성이면 소리가 커야 하므로 진술의 앞부분이 성립되면 뒷부분이 성립되지 않고 뒷부분이 성립되면 앞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순 형용이다.

예문보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정지용, 유리창 1

예문보기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예문보기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작품명과 작가

뻘디기,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풍자

(3) 풍자(諷刺, satire)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가운데,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숨겨 두는 진술 방식인데, **주로 인간의 악덕과 어리석음,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예문보기

예수의 손발에 못을 박고 살리우듯이

그렇게라도 산다면야 오죽이나 좋으리요?

그렇지만 여기선 그 못도 그만 빠자는 것이야.

그러고는 반창고나 찌금씩 그 자리에 부치고

뻘디기 니야까나 끌어 달라는 것이야.

‘삐억 삐어 뻘디기, 한 봉지에 십원, 십원, 비 오는 날 뻘디기는 더욱 맛이 좋습네.’

그것이나 겨우 끌어 달라는 것이야.

그것도 우리한테 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육학년짜리 손자놈들에게까지 이어서
 끌고 끌고 또 끌고 가 달라는 것이야.
 우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제에길.

— 서정주, 뻘디기

- ▶ 희망이나 꿈을 갖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을 뻘디기나야까나 끌고 살아야 하는 생활로 풍자하고 있다.

예문 보기

넥타이를 한 흰 식인종은
 니그로의 요리가 칠면조보다도 좋답니다.
 살갓을 희게하는 검은 고기의 위력
 의사 -콜베-르씨의 처방입니다.
 -헬매투를 쓴 피서객들은
 난잡한 전쟁 경기에 열중했습니다.
 숲은 독창가인 심판의 호각 소리
 너무 흥분하였으므로
 내복만 입은 파씨스트
 그러나 이태리에서는
 설사제는 일체 금물이랍니다.

— 김기림, 시민 행렬

- ▶ 제 1~4 행에서는 백인들의 흑인 탄압을, 제 5~7 행에서는 전쟁을, 제 8~11행에서는 파씨스트의 광분을 풍자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 비속어를 써서 부정적 현실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흉내 내어 표현함으로써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현실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제 비속어를 써 가며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4) 비유법

- ① 개념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어 제시하는 방법
- ㉠ 원관념[주지(主旨)] :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물이나 개념
- ㉡ 보조 관념[매재(媒材)] : 원관념을 실어 나르는 구실을 하는 보조적인 사물이나 관념
 - 주관적 변용(사이비 진술) - 비유와 상징도 일종의 거짓 진술(사이비 진술)이며, 이 외에도 사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비 진술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거짓이지만 시의 문맥 전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예문 보기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어나 볼까

— 작가 미상, 민요

- ▶ 세월은 묶거나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서정적 자아의 의지로 변용하여 동여 맨다고 표현하고 있다.
 - 비유어는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진부한 비유를 사비유(死譬喩)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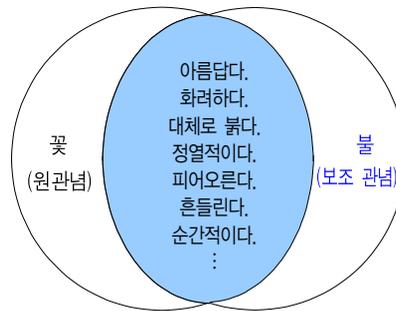
예문보기

심금(心琴)을 올린다.

▶ 심금은 원래 마음을 올리는 거문고란 뜻이지만 마음을 비유하는 사비유에 해당한다.

- 원관념은 직접 제시되기도 하지만 색채, 모양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환기되기도 함.

<비유의 성립 과정>



▶ 대상을 서로 유추(類推)하거나, 대상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비유를 성립시킨다.

② 기능

- ㉠ 의미 확충 : 전달의 측면에서, 원관념만으로는 불리일으키기 어려운 미묘한 의미의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 ㉡ 형상화 : 비유를 통해 사물 또는 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곧 심상을 이룰 수 있다.
 - ㉢ 개성 표출 : 같거나 비슷한 비유의 반복 사용은 특정 작가나 문학 양식의 특징을 드러낸다.
- ③ 종류 : 두 사물(개념) 사이의 공통점을 직접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갈래가 달라진다.
- ㉠ 직유법 : ‘~처럼, ~같이, ~인 양’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직접 밝히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예문보기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 신경림, 농무

▶ 원관념 :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걱정이 공통점 : 울부짖는다.
원관념 : 또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서림이 공통점 : 해해댄다.

- ㉡ 은유법 : 공통점을 숨기어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숨겨지므로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문보기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 — 서정주, 광화문

▶ 원관념 : 광화문 보조 관념 : 종교 공통점 : 사람들이 떠받든다, 숭고하게 여긴다.

㉔ **의인법** : 추상적 개념이나 비인격적 대상에 인간적, 인격적 특질을 부여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예문보기

시간의 발은
소리나지 않는 계단을 뛰어내려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 강규형, 쓰러지는 잔

▶ 시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㉕ **감정 이입** : 시적 화자의 감정을 특정 사물(대상)에 집어넣어, 그 사물의 속성으로 체험하는 방법. 의인화의 한 방편.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낸다.**

예문보기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어어 사창에 여윈
잠을 살뜨리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리는 저 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고시조

▶ 귀뚜리가 즐겁게도 울 수 있고 슬프게도 울 수 있을 것인데 위 시에서는 절절이 슬픈 소리로 혼자 운다고 표현하여 시적 화자의 슬픔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㉖ **객관적 상관물** : 감정을 객관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사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문보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훔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위 시에서 '나룻배'는 행인을 강물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실을 한다. 이는 누가 보아도 쉽게 판단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보기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서정주, 귀촉도(歸蜀途)



위 시에서 '새'는 귀촉도를 가리키며 귀촉도는 자규, 망제, 두흔, 두우, 두백 등으로도 불리는데 중국 촉(蜀)나라 사람인 망제(望帝)의 죽은 넋이 두건이가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객관적으로 슬프게 우는 새의 대명사로 되어 있다.

예문보기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황제의 향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 때로 기도드린다.

— 김남조, 정념의 기



위 시에서 '기(旗)'는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가만히 있기도 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때로 갈등하고 때로 평온을 되찾는 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나타낸다.

㉔ 환유법 : 사물의 속성으로 그 사물 자체를 가리키는 비유 방법으로
사물의 속성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예문보기

송장이
수백만(數百萬)
붉은 피가
삼천리. — 송옥, 해인연가(海印戀歌)7

▶ 삼천리는 한반도나 한국의 전국토를 가리킨다.

㉕ 제유법 : 사물의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 방법으로 사물의
부분적 특징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 대유법은 환유법과 제유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수사법이다.

예문보기

신이여 우리 아버지 당신 곁에 오거들랑
그에게 잘 드는 낫과 삽 한 자루씩 주세요. — 이유경, 아버지의 흙2

▶ '낫과 삽'은 농기구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㉖ 풍유법 : 암시적, 풍자적 비유 방법으로 교훈성이 강하며, 가볍게 공격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는 이루기 어려운 허황된 희망을 의미한다.

㉗ 중의법 : 하나의 말을 가지고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
이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독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
과가 있다.

예문보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재미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엿것인들 귀 뉘 따해 났다니. — 성삼문, 고시조

▶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과 '수양 대군'을 뜻하고, '재미'에서 '미'는 '고사리'와 '수양대군의 녹'을 뜻한다.

(5) 강조법

- ① 개념 : 말이나 글의 표현을 보다 생생하고 절실하게 하기 위하여 **글이나 말에 힘을 주어 세차게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 ② 종류
- ㉠ 과장법 : 사물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대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잘 들어낸다.**

예문보기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 고은, 성묘

▶ 슬퍼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눈에 피(선지)가 고인다고 과장하고 있다.

- ㉡ 영탄법 :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 조지훈, 풀잎단장

- ㉢ 반복법 : 같거나 비슷한 낱말, 구절, 문장 등을 거듭 써서 뜻을 강조법이다. **울격미를 형성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건우의 노래

- ㉣ 점층법 : 점점 힘 있는 말이나 중요성이 큰 말을 거듭 써서 글의 힘을 강하게, 높게, 크게, 깊게 고조시키거나 반대로 나열하여 약화시키는 강조법이다. **독자를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는 데 효과적이다.**

예문보기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뵈단 말이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
나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오리. - 김상용, 고시조

- ㉤ 대조법 : 상반·상대되는 어구 또는 사상(事象)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보이는 강조법이다. **대상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중략)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흰나비와 새파란 초승달의 색상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㉞ **현재법** :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예정된 일을 현재 눈앞의 일처럼 나타내어 실감을 돋우는 강조법이다. **사실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당나라의 현종이 춤을 춘다.
 수왕이 미쳐서 춤을 춘다.
 양귀비가 알몸으로
 춤을 춘다. — 박성룡, 양귀비꽃

㉟ **역양법** : 처음엔 치켜 올렸다가 나중에 낮추거나 이와 거꾸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두 사실을 명백하게 대조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손아,
 조국아 나의 폐허여 —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 금도끼와 은도끼로 잘 다듬는다고 치켜 올렸지만 오히려 조국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의미로 역양법이다.

㊱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말을 다시 뒷 구절의 머리에 놓아 그 뜻과 리듬을 인상 깊게 하는 강조법이다.

예문보기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뵈.
 고인을 못 뵈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던 아니 예고 어이리. — 이항, 도산십이곡

작품명과 작가

도산십이곡, 이항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학문에의 정진

표현상의 특징

1.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다.
2. 상징어를 사용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시키면서 길을 상징적 의미로 활용해 학문에의 정진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6) 변화법

① 개념 : 글이 너무 단조롭거나 지루한 경우, 말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다.

② 종류

㉠ 대구법 :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하여서 병행의 인상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변화법으로서,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켜 강한 인상을 준다.**

예문보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도치법 : 문법이나 논리상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변화법으로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는. - 김현승, 절대 고통

㉢ 생략법 : 말의 일부를 감추는 변화법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암시하거나 여운을 남긴다.**

예문보기

마돈나, 언젠들 안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올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네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야 알려만......
- 이상화, 나의 침실로

▶ '왜 오지 않느냐? 빨리 오너라'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7) 언어 유희(言語遊戯, pun)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 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한 말장난을 뜻한다.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치정(癡情) 같은 정치가
상식(常識)이 병인 양하여
포주나 아내나 빛과 살불이와
현금이 **실현**하는 **현실** 앞에서
다달은 낭떠러지!

— 송옥, 하여지향

▶ 음절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로 재미와 함께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북창(北窓)이 맑다커늘 우장(雨裝)이 업시 길을 나니
산(山)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 비 맛жат시니 얼어 잘까 하노라

— 임제

▶ 찬비는 한우(寒雨)라는 기생을 나타내는데 기생의 이름에 들어있는 한(寒)의 의미를 이용해 '얼어 잘까'라고 표현하고 있어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임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찬비 → 한우 → 연정 고백

주제 | 비에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 고백

표현상의 특징

1.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찬 비에서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을 흥미롭게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3 방법은 있다



표현 기법 및 발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반어는 언어적으로는 아무 모순이 없으나 상황적으로 상반된 표현인가로 판단한다.
2. 모순 형용은 앞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 나란히 놓였는가로 판단한다.
3. 역설은 언어 자체의 모순보다도 상황의 모순이 있으며 다른 면에서 진실된 것인가로 판단한다.
4. 풍자는 표현한 대상이나 의도를 축소시켜 표현하므로 이를 확대시켜 볼 때 사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로 판단한다.
5. 언어 유희는 다음을 확인해 본다.
 - 음절이 도치되는 말로 짝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핀다.
 - 부분적으로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 제시된 말을 앞뒤의 말과 비슷한 발음으로 된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6. 보조 관념이 의미하는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7. 표현된 시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선명한 인상, 효과적 전달, 강조, 새로운 관심 환기, 여운 등)를 생각해 본다.
8.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때에는 대구 등 문맥에 의해 필연적으로 들어갈 내용 알아본다.
9. 수사법의 종류를 익혀 주어진 시 구절에 사용된 수사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10. 표현하고자 한 실체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비유법
11. 독자의 인상을 깊게 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강조법
12. 단순하거나 무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절이나 시행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변화법
13. 사물을 어떤 형태로 비유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14. 사물을 주관적 변용은 대상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활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제리 아낙네들 -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짚어댄다
 이 개 짚으니 저 개도 짚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짚어 댄다
 이런 개 짚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짚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A]

나 그 나무 -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B]

작품명과 작가

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선제리 아낙네들의 의좋은 사는 삶의 아름다움

표현상의 특징

1.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런'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켜 운율감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법을 구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가난하여도 의좋게 살아가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나 그 나무, 김명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늦된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요 표현상의 특징 요

1. 시적 대상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 의문형 종결 어미를 구사하여 소망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시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대상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작품이다.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01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한 두 구절의 표현 기법을 적절하게 대비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는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란’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키고 있지만 [B]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가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A]에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만 있지 대조는 없다. ③ [B]와 [A] 둘 다 공감각적 표현은 없다. ④ [A]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B]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⑤ [A]에서 ‘까 여’, ‘다 여’ 등은 사람 말의 종결 어미를 따온 것으로 의성어가 아니며 [B]에서도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러 산 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꼭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림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쪽 남해를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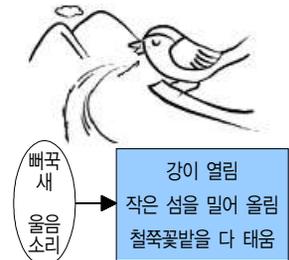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A]

작품명과 작가

지리산 삐꼭새, 송수권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삐꼭새 울음소리의 실체와 그 영향

표현상의 특징

1. 중심 시적 대상이 다른 대상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다.

해제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는 이 시는 삐꼭새 울음소리가 끼친 영향을 이 이미지로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 송수권, 『지리산 삐꼭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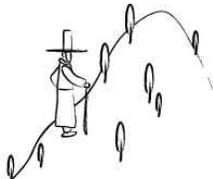
* 길쁜 : 길이 멀 뜬.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작품명과 작가

㉠면앙정가, 송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8행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

9행~끝행 면앙정의 정경

주제 |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며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

요 표현상의 특징

1.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울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4음보를 반복해 강한 울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을 기리는 송가(頌歌)이면서 자연을 소재로 안빈낙도하는 삶의 행복감과 자부심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무등산 한 활개 뵈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떴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 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
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앞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노화(蘆花)* 를 사이 두고 우리꿈 좇느느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뵈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앙정가』 -

[B]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0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울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 **문항 분석** 두 시구의 표현 기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에서는 ‘빠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활유법이나 의인법을 구사하여 동적 미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B]에서는 물을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이란 구절 등을 통해 동적 미감을 시각적으로 직유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라는 구절에서는 모래밭을 직유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②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라는 구절에서 보듯 강한 음보율을 드러내는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③ 둘 다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둘 다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둘 다 영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즐거운 편지

< I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II >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 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03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 I >과 유사한 것은?

- ① 임의 말씀 절반은
 맑으신 웃음
 그 웃음의 절반은
 하느님 거 같으셨네
 임을 모르고 내가 살았더면
 아무 하늘도 안 보였으리

▣ **작품명과 작가**
즐거운 편지, 황동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변함없이 기다리는 사랑의 즐거움

☞ **표현상의 특징**

1. 편지투의 어조로 내적 고백을 털어놓고 있다.
2. 시적 화자 자신의 행위를 반어적으로 평가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두 연으로 된 산문시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의 태도를 세월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사소하고 자칭하는 표현에서 겸손한 우리말 어법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 ②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
- ③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 ④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 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거운 비(碑)스들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서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반어적 표현을 알아내고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시적 화자는 '내 그대를 생각함은 ~ 사소한 일일 것이나'라든지,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일은 나로서는 뜨거운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소함이란 표현은 본래 의도와는 상반된 의미이다. 따라서 반어적인 표현이다. ②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어느 날 찾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으시는 날 그때까지 못잊어 하고 있겠다는 것은 결국 잊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반어적 표현이다.

● **오답 비루기** ①은 가정법을 통하여 임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③은 종소리와 자신을 동실사(의인화)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는 자신·자신의 백골의 대립을 통하여 절대적·도덕적 이상의 추구를 염원하고 있으며 ⑤는 명령법을 통하여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예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04 ㉠과 같은 표현 방법을 구사한 예가 아닌 것은?

-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③ 이제 봄날은 가고
황홀한 재앙의 시간도
오래지 않으리
- ④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⑤ 사람들은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핀을 꽃고 돌아들 간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인 모순 허용(역설)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외로운'과 '황홀한'이 심사를 꾸미고 있는데, 외로우면 황홀할 수 없고 황홀하면 외로울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이므로 언어 자체가 모순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모순 허용(역설)이다. ⑤에서는 애정의 핀이라는 구절에서 은유법만 사용되었다

● **오답 바꾸기** ①의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황홀한 재앙'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외로운 눈부심'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⑤

작품명과 작가

유리창1, 정지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별, 새 : 죽은 아이의 영상



주제 | 자식을 잃은 애절한 마음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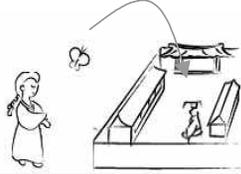
1.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대상의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의 구절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제시함(감정의 대위법)으로써 감정을 절제된 느낌을 자아낸다.
4. 호흡을 점점 길게 하는 점층적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유리창에 비치는 죽은 자식의 영상을 산새와 별로 상징하여 드러내면서 애절한 마음을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 대립적 언어를 병치하여 오히려 차다고 느낄 만큼 차분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사미인곡,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주제 |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임에 대한 사랑

표현상의 특징

-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울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 적절한 비유로 시적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4음보의 울격을 반복하여 강한 울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제시된 시가는 사미인곡의 결사 부분으로 임에 대한 축원과 잠 못 이루는 사랑, 죽어 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좇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외재적 관점으로 보면 임은 임금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흐 비친 제 사름은크니와 늘새도 근쳐 있다. 소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늘너 므슴 흐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첨(茅簷) 비친 히를 옥누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뚝(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룬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티 던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썸의나 님을 보려 툇 맞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셤고.

하루도 열두 새 흐 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심각 마라. 이 시름 낫자 하니, 므음의 락쳐 이셔 골슈(骨髓)의 켜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츰려 호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 소상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 모첨(茅簷) : 초가집 처마

* 슈뚝(脩竹) : 긴 대나무

* 옥누(玉樓) : 옥황 상제가 있는 곳

* 취슈(翠袖) : 푸른 소매

* 던공후(鈿箜篌)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05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대상을 뒷글에서 찾으시오?

| 보기 |

冬至(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① 옥누(玉樓)

② 양춘(陽春)

③ 홍상(紅裳)

④ 양금(鴛鴦)

⑤ 골슈(骨髓)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표현과 표현 기법상 유사한 표현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는 추상적 의미인 밤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베어내고 이불 아래 보관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라는 표현은 따뜻한 봄을 구체적 사물화시켜 부쳐 내고 임 계신 데 쏘고자 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옥누의 원관념은 궁궐이므로 은유법이다. ③은 '붉은 치마'이므로 사실적 표현이다. ④는 원양 금침의 준말로 원양은 금슬이 좋다는 관습적 상징이며 금침은 베개와 이부자리이므로 사실적 표현이어서 주관적 변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⑤는 뺏속이라는 말이므로 시름이 뺏속에까지 끼쳐 있다는 표현이므로 과장법이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석가모니불이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涅槃)에 들었는데,
 지금 역시 그 같은 자가 있어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에 들어가려 하네.

* 사라수 : 상록수의 일종

*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 : 부처님이 산다는 장엄한 세계

06 위 시와 표현의 방법이 유사한 것은?

- ①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 ② 물결은 어디로 흘러가기에
 아름다운 목숨을 싣고 갔느냐
-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④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 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수사법을 알아내어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씌어진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제시된 시에는 ‘옛날과 지금’, ‘석가모니불과 그 같은 자’, ‘열반과 연화계관장’, ‘들었는데와 들어가려 하네’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하늘과 땅’, ‘구름과 바람’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바꾸기** ①에서는 ‘바람이 고난, 어려움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④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⑤에서는 당신이 ‘조국, 불법(佛法), 연인’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③

▣ **작품명과 작가**

삼국유사, 일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연화장계관에 들어가기를 빚

주제 | 죽은 자에 대한 축원

표현상의 특징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한시의 한 특징인 대구를 활용하여 운율적 효과를 살리면서 죽은 이가 부처의 세계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가길, 김소월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가마귀 = 감정 이입

기러기 = 선망의 대상

주제 | 나그네의 비애와 정한

표현상의 특징

- 3음보를 구사하여 강한 율격미를 드러낸다.
- 기러기에 말하는 형식으로 대화 존재의 부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 비애를 자연물에 기대어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

-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가왓가왓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정주관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도.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깰깰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깰깰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함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 앉는다.

01 (가)와 (나)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새로운 세계에, (나)의 화자는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② (가)의 화자는 길을, (나)의 화자는 애국가를 통해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 ③ (가)의 화자는 냉소적 어조로, (나)의 화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사회적 현실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 ⑤ (가)의 화자는 기러기를, (나)의 화자는 흰 새떼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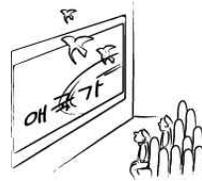
| 보기 |

김소월에게서 ‘암’과의 ‘이별’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것으로, 그 이별의 상태가 극복될 가능성은 거의 주어 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소월의 시에서는 억누를 길 없는 비애와 절망을 안으로 삭이는 한의 정서가 강조된다.

작품명과 작가

④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 반영)

주제 | 암울한 현실적 삶에 대한
 좌절감

표현상의 특징

1. 현실을 죽음과 절망, 초월해 보고 싶은 환멸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 자유로운 새들과 시적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조해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3. 뉘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토로하면서 피곤하고 역겨운 현실을 탈피한 좀 더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회구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① 임과 같은 '내 집'을 떠나 유랑하는 비애를 노래하고 있군.
- ② 임과 같은 '내 집'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③ '산'은 '내 집'으로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해.
- ④ '정주곽산'은 이별한 대상이 되는군.
- ⑤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란 표현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딱한 처지를 대조적으로 드러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란 표현에는 암울한 시대 상황이 암시되어 있다.
- ② 전체적으로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2행의 '경청한다'란 표현은 강요된 애국심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 ④ 10행의 '이 세상 밖'은 또 다른 환멸의 공간을 의미한다.
- ⑤ 17행과 18행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현실 순응을 강요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1]

01 ⑤ 02 ③ 03 ④

01 ⑤

● 문항 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자유롭게 날고 있는 기러기를 제시하여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흰 새떼들을 제시하여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 (가)는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나)에서는 '주저앉는다'란 구절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가)는 집을 내세워 고향 즉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 밖 즉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② (가)는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애국가를 들으며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현실 도피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애상적 어조, (나)는 냉소적인 어조를 드러낸다. ④ (나), (나) 둘 다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02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는 갈 곳 모르는 심정의 표현이지 산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바꾸기 ① 시적 화자는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하며 유량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 적절하다. ②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보듯 정주곽산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④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라는 표현에서 보듯 정주곽산은 이별한 대상이다. ⑤ 차와 배는 갈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하여 유독 시적 화자만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를 잘 드러낸다.

03 ④

● 문항 분석 시구의 표현 기법이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 세상 밖은 시적 화자가 이 세상이 싫어 떠나고자 하는 지향점'이므로 이상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오답 바꾸기 ① 제목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해야 하는 세상을 새들도 싫어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암울한 시대상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대면서',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깔깔대면서 깔쪽대면서' 등의 구절에 된소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데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 ③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해야 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청한다'는 듣기 싫어도 마지못해 듣는다는 의미의 반어적 표현이다. 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해야 하는 부정적인 세상에서 '대한 사람' 대함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억지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가) 길, 김소월



시적 화자의 처지는 ‘나그네 집’이란 시어에 명백히 드러난다. 어디론가 여행이나 혹은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가 ‘울며 새었다’면 시적 화자도 밤새워 들었을 게다. 잠 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터니. 그렇구나. 떠도는 나그네가 무슨 근심에선가 밤새 슬퍼 잠 못 이루었다는 얘기다. 왜 그랬을까? 해답은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란 표현에 있다. 고향을 떠난 상황이다. ‘차 가고 배 가는’ 고향을 두고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고 말하는 것은 옛가요에 나오는 ‘고향을 두고도 못 가는 신세’에 처한 자신의 딱한 상황 때문이리라.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일까 아니면 사회적 사정일까? 약간의 배경 지식만 동원해 본다면 일제 강점기하의 지독한 수탈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공중의 저 기러기를 불러대는 것은 새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또한 대화 상대의 부재를 나타내 고독의 쓰라림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의 목표는 오락이다. 오락을 즐기려는 사람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란 말을 듣는다면 기절할 노릇이리라. 강요된 의식이다. 화면에는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어진다. 절망 속에서는 새들의 비상도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갈쭈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가사로 애국가는 끝이 나고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것도 ‘주저 앉는다’ 절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을 위한 서시

-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나

폭포

- 이형기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육을 아는가.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直立)
그 위에 벼랑은 다시 솟는다.

그대는 아는가
석탄기(石炭紀)의 종말을
그 때 하늘을 높이 날으던
한 마리 장수잡자리의 추락(墜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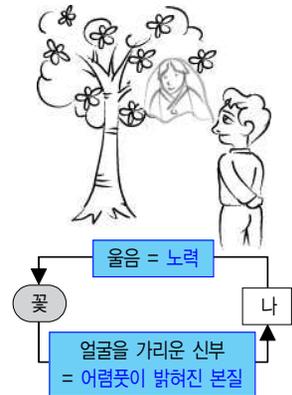
㉠나의 자라는 자멸(自滅)이다.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자품명과 작가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존재의 본질 인식에의 염원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므로써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2.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소망을 읊은 작품이다.

자품명과 작가

㉠폭포, 이형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폭포를 통하여 느끼는 일상적 삶의 존재론적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

요 표현상의 특징

1. 폭포를 의인화하여 그 철학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2.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폭포의 이미지를 관념화하여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한계와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는 철학적인 작품이다.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盲目)의 눈보라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 (나)의 화자는 직접 시적 대상이 된 것으로 상상하여 시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소망을 이룬 기쁨을, (나)의 화자는 소망을 못 이룬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자신에 대한, (나)의 화자는 파괴된 자연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추억 속의 시적 대상에 대하여, (나)의 화자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에 대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과거의 상황을, (나)의 화자는 현재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02 (가)에서 발상을 얻어 다음 <보기>와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할 때, 두 시의 시적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오렌지 - 신동집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잘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푹푹
배암의 포아리를 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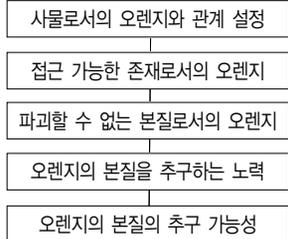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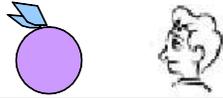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 ①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② 대상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대상에 의지해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오렌지, 신동집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존재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에 대한 추구

표현상의 특징

1.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2. '포들한, 찹잘한' 등의 시적 자유에 의한 표현으로 중심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오렌지라는 소재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져 그 본질을 이해할 가능성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발상 및 표현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껌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껌데기는 가라, 신동엽
- ②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 티 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러했건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 바라춤, 신석초
- ③ 산비탈 넉지시 타고 내려오면 /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로이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 ④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 떨어진다. - 폭포, 김수영
- ⑤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동생 순이,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
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나? - 네거리의 순이, 임화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2]

01 ① 02 ④ 03 ④

01 ①

● 문항 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꽃을 '너'로 의인화시키고 있고 (나)는 폭포를 '나'로 하여 직접 시상을 펼치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가)는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라는 구절로 볼 때 꽃의 정체를 알아내려 하였으나 정확하게는 알아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망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 ③ (가)에서 울음은 금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노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파악해야 하지 연민의 울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나)는 파괴된 자연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가)는 시방이라는 시어로 볼 때 현재에 대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둘 다 회의적으로 보는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02 ④

● 문항 분석 두 시의 시적 화자의 공통된 태도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보기>는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같은 아직 몰라도'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⑤ 두 시 모두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③ 주관적 묘사는 부분적으로 드러나나 객관적 묘사는 없다.

03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의 표현 기법을 알아내고 이와 같은 기법으로 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의 자량은 자멸이다'라는 표현은 자멸이 자량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량이라고 한 표현이다. 그러나 대상이 폭포임을 고려하면 떨어지는 것이 존재 가치가 된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나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역설이다. ④의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역설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⑤ 둘 다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가)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라는 말에 우린 깜작 놀랄 수밖에 없는데 너 또한 대명사여서 금중은 증폭된다.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가지’와 ‘피었다 진다’란 말에서 우리는 너를 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손이 닿으면’은 꽃을 꺾는 행위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 없다’란 말은 인식의 부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무명의 어둠’도 곧 무지의 의미로 쉽게 환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둠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리라. 그래서 ‘추억의 한 접시 불’도 노력이란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은 울음으로 시작하여 돌개바람과 ‘금(金)’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금은 가치 있는 것의 의미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꽃을 얼굴을 가리운 신부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어렵잖게나마 윤곽을 파악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 베일을 벗겨야 하는 과제는 남은 터다.

(나) 폭포, 이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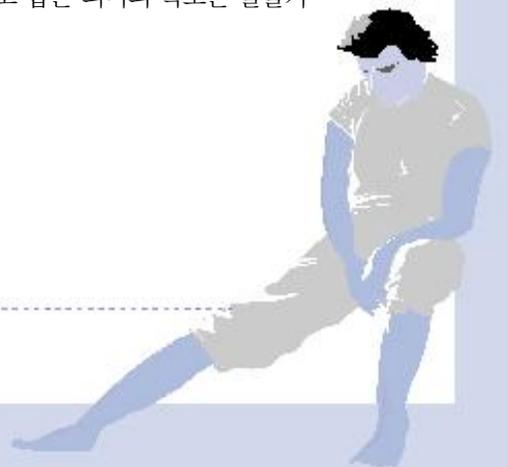


이 시에서 ‘나’는 산이 아닌가란 위험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것은 제목을 무시한 결과에 불과하다.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하며 고함지를 수 있는 화자란 바로 폭포이다. 산은 등장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주 속에 부르르 떨고 마침내 단말마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물줄기에겐 벼랑은 벼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수잡자리의 추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폭포의 비유로 풀 수밖에 없는 의미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2 억 년 묵은 이 칼자욱과 석탄기의 종말이 짝을 이루어 폭포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객관성을 얻는다.

‘나의 자량은 자멸이다’란 구절에서 우린 역설을 읽어 낼 수 있다. 자멸은 자량이 될 수 없다는 논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떨어져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떨어지자고 하는 것은 ‘갈테면 우리가 가자. 끄으려 가지 말고!’란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의 한 구절과도 뜻이 통한다. 복안은 잡자리의 눈처럼 여러 개의 눈이 하나의 눈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도 장수잡자리란 폭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곧 복안은 여러 개의 물방울이며, 그 무수한 수정체이며,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이기 때문이다.

‘나의 등판을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는 물줄기 즉 좁은 의미의 폭포를 빛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넓은 의미의 폭포는 벼랑과 물줄기로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의 폭포는 물줄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옳음을 입증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승무(僧舞)

- 조지훈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 국화 옆에서

-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풍명과 작가

㉡승무, 조지훈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3연 춤추기 전의 모습 기

4~8연 배경과 춤추는 모습 서

9연 춤의 종료 결

주제 | 인간 번뇌의 종교적 승화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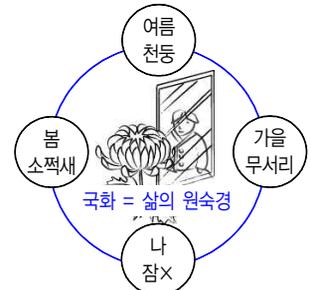
1. '고깔, 머리, 불', '소매, 외씨보선', '눈동자, 뺨, 손' 등 위에서 아래로 묘사하는 것을 반복하여 너울너울 춤을 추는 율동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외부 묘사에 치중하고 갈등은 암시적으로 드러낸 후 '별빛' 등의 이미지를 통해 내적 정화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불교적인 시어와 '오/우'가 들어가는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여 우아한 맛을 살리고 있다.
4.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안정감, 통일감, 균형미를 구현하고 있다.
5. 유음 '르'를 많이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해제 이 시는 인간적 번뇌를 별빛처럼 맑게 승화시켜 선적(禪的)인 정취와 분위기를 멋지게 드러내고 있다.

자풍명과 작가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온갖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한 경지

요 표현상의 특징

1. 민요조의 3음보를 반복하여 친근한 율격미를 형성하고 있다.
2. 소쩍새나 천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렇게'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가 형성되기까지의 비통과 불안과 방황과 온갖 시련을 국화가 피어나는 과정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림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사람에 대한, (나)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는 시적 대상이, (나)는 화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사람을 통해,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적 고뇌를 극복한 삶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나)는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어두운 공간에서 나타난 자연 현상에 대하여, (나)는 밝은 공간에서 나타난 사람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02 (가) 시를 <보기>의 관점에서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작품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보면서 문학 작품을 고도의 형상적 언어로 조직된 자율적인 체계로 본다.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작가나 시대,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 이해하며, 언어 표현의 방식과 작품의 내적인 짜임새를 중시한다.

- ① 춤의 동작과 대상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확인할 수 있어.
- ② 지상적 이미지와 천상적 이미지를 대립적으로 배치한 느낌이 들어.
- ③ 문법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어휘들이 있어.
- ④ 우아하고 예스러운 어휘들을 사용하여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 ⑤ 갈등의 종교적 해결을 나타낸 것은 작가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03 (나)에 대한 구체적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어구를 반복해 율격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② ‘국화꽃’과 세 계절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거울’은 객관적 사실을 투영해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 ④ ‘잠’이란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와 시적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소쩍새 소리나 천둥 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독자의 상상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4 ㉓와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 ① 오호, 흰 눈이 내리느니, 보오얀 흰 눈이
북새(北塞)로 가는 이사꾼 짐짝 위에
말없이 함박눈이 잘도 내리느니 - 눈이 내리느니, 김동환
- ② 진중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오, 너는 어드메 꽃같이 숨었느냐. - 그리움, 유치환
- ③ 아 내가 모르는 것을, / 내가 모르는 그 절망(絶望)은
비로소 무엇인가 깨닫는 심정이
왜 이처럼 가볍고 서글픈가. - 들길, 이형기
- ④ 매끄러운 무우를 혀끝으로 더듬으며 / 이빨로 사정없이 물어뜯으며
마을을 가리던 키 큰 그림자 / 세상을 덮어버릴 때까지
나는 새파랗게 웃고 있다. - 일식, 이경교
- 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망한 / 이 황무한 전장에서
이름도 모를 꽃 한 송이 / 뉘의 위촉으로 피어났기에
상냥함을 발돋움하여 하늘과 맞섬이뇨. - 꽃, 박양균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3]

01 ③ 02 ⑤ 03 ③ 04 ③

01 ③

● 문항 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의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라는 구절에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나)의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는 구절에 삶의 고뇌를 이겨냈다는 시적 의미가 담겨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가)에 승 즉 스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은 없다. ② (나)는 자연물인 국화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화자의 현실에 대한 표현은 없다. ④ (가), (나) 모두 비판적 태도를 표현한 내용이 없다. ⑤ (가)는 사람을 (나는 꽃을 노래하고 있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관점으로 비평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는 작품 감상의 여러 관점 가운데 '내재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작품의 감상에서 작가와 현실, 독자의 측면보다는 작품 자체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시에서 '복사꽃 고운 뺨에 ~ 별빛이다'에서 갈등의 종교적 승화라는 주제 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작가의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작가를 중시하고, 작품의 외재적 관점인 '표현적론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시의 구성 방식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② 제시된 시어 '세사와 별빛'의 대응 관계를 밝히고 있으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③ '이 밤사 귀뚜라, 하이얀, 나빌레라' 등등의 시적 허용과 관련된 감상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④ 직접적으로 시어와 관련된 감상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03 ③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라는 표현으로 보아 거울은

'회상과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 오답 바꾸기 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와 '울었나 보다'가 반복되고 있다. ②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 천둥, 무서리 등이 연관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의미한다. ④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소쩍새나 천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렇게'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어 적절하다.

04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구절에 사용된 표현 기법을 알아내고 이와 같은 기법이 사용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라는 구절에서 번뇌는 고통스러운 것인데 별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이다. 그러나 번뇌 속에서 구원의 빛이 찾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성립된다. 따라서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그대로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③에서 '가볍고 서글픈가'라는 표현도 역설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영탄법과 반복법. ② 직유법, 영탄법, 의인법. ④ 특정 표현 기법이 없다. ⑤ 의인법.

(가) 승무, 조지훈



고깔의 모양을 한 마리 나비로 비유해 본 시적 화자의 시선은 고깔 속의 머리와 두 볼의 순으로 하강한다. ‘고와서 서러워라’는 역설적 표현이다. 다시 시선은 배경으로 옮겨가며 ‘오동 앞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란 참신한 표현을 만들어낸다. 펼치는 소매의 끝자락이 하늘에 닿을 듯한 모습과 정중동의 발동작을 연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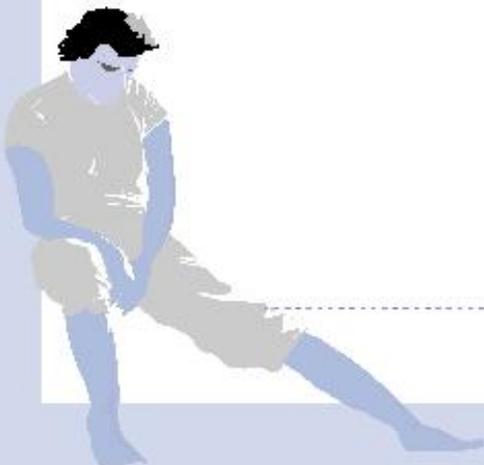
까만 눈동자에 까만 하늘 그리고 빛나는 별, 복사꽃 고운 뺨에서는 젊은 여승의 번뇌가 묻어날 듯도 한데 ‘번뇌는 별빛이라’며 이를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후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첫연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율격과 안정감을 조율해 시를 끝맺고 있다.

(나) 국화 옆에서, 서정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는 것이 정말일까? 이런 의문으로 시를 해석하면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러한 진술이 참이 되는 것은 시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울었다는 데 어떻게 온 것일까? 이것은 좋은 의문이다. 앞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을 지시어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모미는 이런 점에서도 살아난다. 다시 ‘그렇게’는 어떻게?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독자가 들은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름에는 천둥이 울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다니 계절과 자연과 인간이 다 인연을 맺고 발생한다는 불교의 연기설(緣起說)이 성립된다. 그러한 연기설은 화자의 인식에 의한 것이므로 시적 참이 되는 셈이다.

제3연은 다른 연과 달리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며 대상 자체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연이다. 누님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으로 인생의 걱정을 다 겪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숙한 모습의 여인이다.



작품명과 작가

어부가(漁夫歌), 이현보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인세, 십장홍진 ↔ 일엽편주, 천심녹수...

주제 | 자연을 벗하는 풍류 생활

표현상의 특징

-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울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 2 설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3 대립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유유 자적하며 사는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부가(漁夫歌)

- 이현보

이 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夫)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늘 가는 줄로 안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닐갓는고

㉢강호애 월백(月白)헛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청하(靑荷)애 바블 싸고 녹류(綠柳)애 고기 께여
노적화총(蘆荻花叢)애 빅 미야 두고

㉣일반 청의미(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라실고

산두(山頭)애 한운(閒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애 백구(白驢)이 비(飛)이라.
무심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애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장안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로다.

어주(漁舟)애 누어신달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된 표현으로, 현실적 절망을 확대시키고 있다.
- ②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풍자의 기법으로, 잘못된 사회상을 꼬집어 공격하고 있다.
- ④ 대조의 기법으로, 소망하는 삶의 양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⑤ 구체적 묘사를 통해, 지향하는 고향의 모습을 뚜렷이 그려내고 있다.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일엽편주(一葉扁舟)'라는 시어를 통해 어부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달이 밝다는 뜻의 시어 '월백(月白)'을 통해 화자가 욕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맑고 깨끗한 삶이란 의미의 시어 '청의미(淸意味)'를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백색 이미지의 시어 '백구(白駒)'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삶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은 북쪽에 있는 대궐이라는 뜻의 시어 '북궐(北闕)'을 통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음을 표출하고 있다.

03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날마다 강가에서 고기 낚는데
낚시 무는 놈은 모두 잔챙이.
누가 알까, 저 푸른 바닷물 속에
배보다 더 큰 고기 있음을. - 김류
- ② 호미 메고 꽃 속에 들어가
김을 매고 저물녘에 돌아오네.
맑은 물이 발 씻기에 참 좋으니
샘이 숲속 돌틈에서 솟아나오네. - 강희맹
- ③ 봄 비 가늘어 방울 없더니
밤 되자 빗소리 귀에 들리네.
눈 녹아 시냇물 불어날 테고
파릇파릇 풀 싹도 돌아날 거야. - 정몽주
- ④ 동남으로 저 멀리 푸른 바다 바라보니
아침 안개 사라지고 붉은 해 일렁이네.
위아래가 어슴푸레 같은 색이 되었으니
모르겠네.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가. - 이승소
- 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최치원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4]

01 ④ 02 ④ 03 ⑤

01 ④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ㄹ렛는고'라는 구절에서 자연과 속세를 대조시켜 자연에 귀의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일생(一生)에 시르를 닦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라는 구절에 과장법을 구사하였으나 현실적 절망을 표현한 구절은 없다. ②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잘못된 사회상에 대한 표현은 없다. ⑤ 고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02 ④

● 문항 분석 시구의 의미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백구(白駒)는 흰 갈매기란 뜻인데 한운 즉 구름과 동격으로 자연을 나타내면서 무심코 다정한 대상이 되어 순결한 삶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일엽편주(一葉扁舟)는 조그만 조각배란 뜻으로 소박한 삶을 드러내며 어부의 일상생활을 표현한다. ② '월백(月白)은 '무심(無心)하에라'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욕심을 버리게 하는 구실을 한다. ③ '청의미(淸意味)는 '어늬 부니 아라실고'라는 구절 즉 '그 누가 알리'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자부심을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⑤ '북궐(北鬪)은 '어주(漁舟)에 누어신달 니즌 스치 이시랴'라는 구절 즉 '고깃배에 누워있는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떠올리게 하는 구실을 한다.

03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는 '십장홍진(十丈紅塵) 즉 속세와 격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에서 '늘 시비하는 소리'라는 말도 속세를 의미하며 흐르는 물은 속세의 소리를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 오답 바꾸기 ① 큰 세상을 비유한다. ② 자연의 대유이다. ③ 봄 정경을 의미한다. ④ 하늘과 같은 바다 빛깔을 의미한다.

어부가(漁夫歌), 이현보



전문 현대어역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다만 ‘나의 걱정이 아난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라는 구절을 다소 반어적인 표현으로 보아 나랏일에 대한 일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전문 현대어역〉

이 중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조그마한 쪽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인간 세사를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라. -자연과 합일된 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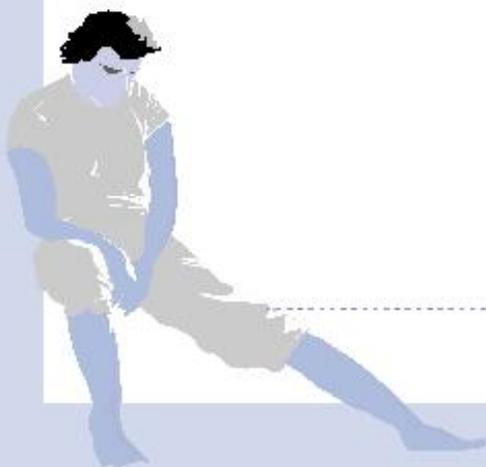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이며,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는 얼마나 가려 있는가.
강호에 밝은 달이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무욕의 강촌 생활

푸른 연잎에다 밥을 싸고 푸른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
갈대꽃이 우거진 떨기에 배를 매어두니,
이런 일상적인 맑은 재미를 어느 사람이 알 것인가. -강호에서의 맑은 재미

산머리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아무런 사심 없이 다정한 것으로는 이 두 가지뿐이로다.
한평생의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놀리라.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정

멀리 서울을 돌아보니 경복궁이 천 리로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랏일을) 잊을 새가 있으랴.
두어라, 나의 걱정이 아난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
-세속을 초월한 강촌 생활

시 해석력 돋보기



유형모의

작품명과 작가

우부가(愚夫歌), 작가 미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행 비판 대상 인물의 제시

2~5행 개똥이의 처신 개관

6~끝 행 개똥이의 비도덕적 행위 묘사

주제 |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과 경계

표현상의 특징

1. 대구와 4음보로 강한 울격을 드러낸다.
2. 시적 대상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3. 인물의 행동을 다소 과장하여 해학미를 드러낸다.

해제 이 작품은 양반 사회가 당연했던 경제적 몰락과 도덕적 타락을 가차 없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부가(愚夫歌)

- 작가 미상

내 말씀 광언*인가 저 화상 구경하게.
 남촌한량* 개똥이는 부모덕에 편히 놓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재넘어
 시체*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겠다.
 장장춘일 낮잠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매 팔자로 무상 출입 매일 장취 게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놀이 저리 모여 투전질에
 기생첩 치가하고 오입장이 친구로다.
 사랑에 조방꾸니* 안방에는 노구할미*
 명조상을 떠세하고* 세도 구멍 기웃기웃
 염량* 보아 진봉*하기 재업을 까불리고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빛이 태산이다.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여진 사람 미워하기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때는 후하여서 ㉣
 승기자*를 염지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키와
 주색잡기 모두 하여 돈주정을 무진하네.
 부모조상 도망하여* 계집 자식 재물 수탐
 일가 친척 구박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흥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짚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날 데 없는 용전여수* 상하탱석* 하여 가니
 손님은 채객*이요 윤의*는 내 몰라라.

- * 광언 : 미친소리.
- * 활량 : 무위도식하는 사람.
- * 용통하여 : 소견머리가 없고 매우 미련하여.
- * 시체 : 철에 따라.
- * 조방꾸니 : 바람피우는 것을 돕는 사람 .
- * 노구할미 : 투쟁이 노릇을 하는 노파.
- * 명조상 : 이름난 조상.
- * 떠세하고 : 젠 체하고 억지를 쓰고.
- * 염량 : 더위와 추위.
- * 진봉 : 권문세가에 뇌물을 갖다 바침.
- * 승기자 : 자기보다 나은 사람.
- * 염지하니 : 싫어하니.
- * 반복 소인 : 언행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짓대 없는 사람.
- * 도망하여 : 완전히 잊고.
- * 경계판 : 관의 바탕면.
- * 용전여수 : 돈을 물처럼 흔하게 씬.

* 상하행식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임시변통.

* 채객 : 빗쟁이.

* 윤의 : 윤리와 의리.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의적인 표현으로,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부정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다.
- ③ 풍자의 기법으로, 대상의 행위를 비꼬아 공격하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대화체를 활용하여, 잘못된 대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관용구를 활용하여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드러낸다.
- ② ㉡ : 대구를 활용하여 유사한 행동을 드러낸다.
- ③ ㉢ : 과장을 활용하여 부지런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 ④ ㉣ : 대조를 활용하여 도리에 어긋남을 드러낸다.
- ⑤ ㉣ : 대조를 활용하여 예의가 없음을 드러낸다.

03 시상 전개상 ㉠에 들어갈 시구는?

- ① 수백냥이 헛것이다. ② 울타리가 떨나무다.
- ③ 원망하는 소리로다. ④ 사람마다 도적이라.
- ⑤ 입구멍이 제일이라.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5]

01 ③ 02 ③ 03 ①

01 ③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대부분의 구절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특히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짚어지고 /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라는 구절에서 풍자의 기법이 잘 드러나며 이는 대상을 비꼬아 공격하는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중의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② 반어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④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대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표현은 없다.

02 ③

● **문항 분석** 시구의 의미와 표현 기법과 그 구실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빛이 태산이다.'라는 구절에서 과장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부지런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많음을 나타낸다.

● **오답 바꾸기** ① 눈이 높고 손이 크다는 관용구이고 '가량없이 주재 넘어라'는 구절은 분수가 없다란 뜻이다. ② '이리 모여 노름놀이'와 '저리 모여 투전질'은 유사한 의미이다. ④ 일가를 먼저 아껴야 하는 도리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⑤ 내 인사가 먼저라는 예절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03 ①

● **문항 분석** 생략된 시구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의 앞 구절은 '후할 때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이어진 구절은 '박할 때는 후하여서'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대조적 대구가 되므로 ㉠에도 대조적 대구의 형태가 되는 ①이 적절하다.

● **오답 바꾸기** ②, ③, ④, ⑤ 모두 대조적 대구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우부가(愚夫歌), 작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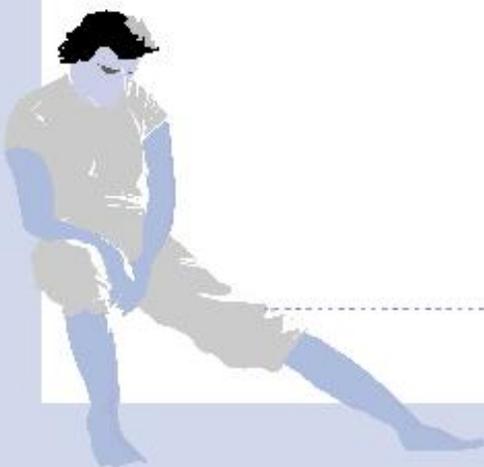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로 시작된 이 가사는 개똥이의 행적을 가차 없이 서술해 나간다. ‘저 인간’이란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인간 같지 않은 행적을 다소 과장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교훈과 더불어 웃음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현대어역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문 현대어역〉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 남촌의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하지만 무식하고 미련하여 소견머리가 없는데다가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대중없이 주재 넘어 유행에 따라 옷을 입어 남의 눈만 즐겁게 한다. 긴긴 봄날에 낮잠이나 자고 아침저녁으로 반찬 투정을 하며, 항상 놀고먹는 팔자로 술집에 무상출입하여 매일 취해서 게트림을 하고, 이리 모여서 노름하기, 저리 모여서 투전질에 기생첩을 얻어 살림을 넉넉히 마련해 주고 오입쟁이 친구로다. 사랑 방에는 조방군, 안방에는 뚜쟁이 할머니가 드나들고, 조상을 팔아 위세를 떨고 세도를 찾아 기웃기 웃하며, 세도를 따라 뇌물을 바치느라고 재산을 날리고, 헛된 욕심으로 장사를 하여 남의 빛이 태산처럼 많다. 자기가 무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후하게 해야 할 곳에는 야박하여 한 푼을 주는 데도 아까워하고 박하게 해도 되는 곳에는 후덕하여 수백 냥을 낭비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소인들이 비위 맞추느라 배가 고플 지경이다. 자기에겐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들과는 화목하지 못하며, 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보신하기와, 주색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부모와 조상은 아주 잊어버리고 계집 자식과 재물만 좋아하며, 일가친척을 구박하고 자기가 할 도리는 나중 일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경계판을 짚어지고 다니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앞장을 선다.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도 물처럼 쓰고 나서 임시변통하기에 바쁘고, 오는 손님은 모두 빗쟁이이고, 사람의 도리는 모른 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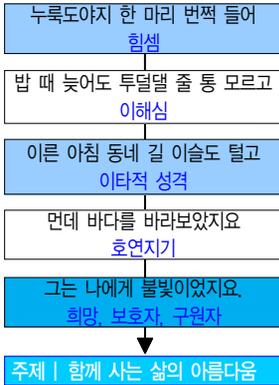
서해석력 표이گی



작품명과 작가

⑦머슴 대길이, 고은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요 표현상의 특징

소박하고 친근한 이야기투로 시상을 전개해 신뢰감을 조성하고 있다.

해제 줌 어리송한 화자가 자신에게 모범이 된 인물에 대한 추앙을 통해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머슴 대길이

- 고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⑦이른 아침 동네 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리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 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가 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⑧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 아이 세상에 눈 떴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가 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
⑨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털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대길이가 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 새우는 불빛이었지요.

나

섬진강1

- 김용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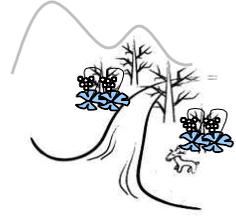
⑩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싹뿔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작품명과 작가

④ 섬진강1, 김용택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표현상의 특징

- 1 시적 대상을 일상어로 비유하여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 2 시적 대상의 행위를 통하여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제 함께 모여 흘러가는 섬진강의 속성을 이용하여 공동체적 삶의 포용력과 민중의 강한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농촌에서의 소박한 삶을 통해, (나)의 화자는 강물의 도도한 흐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낮은 신분을 극복한 사람을 제시하여, (나)의 화자는 대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해 정신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대상 인물에 대한, (나)의 화자는 인격화된 자연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가)의 화자는 과거의 대상에 대한, (나)의 화자는 현재의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낸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활용해, (나)의 화자는 고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생활 속의 행복감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상 인물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태도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여준다.
- ② ㉡ : 한글을 시원스레 읽을 수 있는 것을 의태어를 활용해 표현하면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대상 인물이 휴식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앞으로 힘써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 ④ ㉣ :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강한 신뢰감을 명령문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 대상의 넉넉한 속성을 도치법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0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대상들을 의인화하여 친근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 ② 영산강, 지리산, 무등산 등과 교통하는 섬진강의 모습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 ③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등과 같은 이색적인 비유로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섬진강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라는 표현으로 보아 민중에게 가까운 사람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섬진강은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에 피어난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온갖 서러운 ‘어둠을 끌어다 죽이’는 어머니의 성격을 지닌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공가(雇工歌)

- 허전

남의 옷 밥을 얻고 들먹는 저 雇工(고공)아 우리 집 ㉠귀별을 아는다 모로
는다. 비오는 날 일 업슬 재 샷 꼬면서 니르니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사리
하러 할 재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람이 절로 모다. 풀 뺏고 티을 닷가 큰
집을 지어내고 서리 보십 장기 쇼로 ㉡田畚(전답)을 起耕(起耨)하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가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조커니와 雇工(고공)도 勤儉(근검)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을여리 사던 것슬 요사이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冢그나 동웃시 冢코즈나 마음을 닷호는 듯 호슈을
새오는 듯 무슴일 감드려 흘끗할긔 하느는다. ㉣너희내 일 아니코 時節(시절)
쫓차 사오나와 갖득의 내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는대 엇그재 火強盜(화강도)
에 家產(가산)이 蕩盡(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붓고 먹을 꺄시 전혀 업다. ㉤
크나큰 세사(歲事)을 엇지하여 니로려로 金歌(김가) 李歌(이가) ㉥雇工(고공)들
아 새 마음 먹어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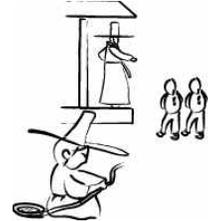
㉦너희내 절머는다 험 혈나 아니는다 한 소태 밥 먹으며 매양의 愾愾(회회)
하랴 한 마음 한 뜻으로 티룩을 지어스라. 한 집이 가을열면 옷밥을 分別(분
별)하랴 누고는 장기 잡고 누고는 쇼을 물니 밧 갈고 논 살마 벼 세워 더져
두고 날 도흔 호매로 기음을 매야스라. 山田(산전)도 것츠룻고 무논도 기워
간다. 사립피 말뭇 나셔 벗 겨태 세울세라. 七夕(칠석)의 호매 씻고 기음을 다
맨 후의 샷꼬기 닐 잘하며 셴으란 닐 엇그랴. 너희 재조 세아려 자라자라 맛
스라. 가을 거둔 후면 成造(성조)를 아니하랴 집으란 내 지으게 움으란 네 무
더라. 너희 ㉧재조를 내 耨酌(집작)하엿노라. ㉨너희도 머글 일을 分別(분별)
을 하려므나 명석의 벼를 년들 도흔 해 구름 끼여 벗뉘을 언재 보랴 방하을
못 찌거든 거즈나 거즌 오려 옥 갖튼 白米(백미) 될 줄 닐 아라 보리스니.

너희내 다리고 새 사리 사자하니 엇저재 왓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대
너희는 귀는 업서 저런 줄 모르관대 ㉩화살을 전혀 얻고 옷밥만 닷토는다. 너
희내 다리고 틱는가 주리는가 粥早飯(죽조반) 아침 저녁 더 해다 먹엇거든 은
혜란 생각 아녀 제 일만 하려 하니 험 혜는 새 들이리 어내 제 어더 이셔 집
일을 맞치고 시름을 니즈려노 너희 일 애다라 하며셔 샷 한 사리 다 쏘괘라.

작품명과 작가

고공가(雇工歌), 허전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고공 : 신하
밥사발 : 벼슬
농사일 : 치국 → 풍자성 강화

주제 |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 비판

표현상의 특징

- 1 시적 대상을 신하에서 머슴으로 낮춰 표현함으로써 풍자성을 높이고 있다.
- 2 시적 화자가 술선수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을 나무라고 있다.

해제 | 나라 일을 농사일에 비기어 백관들의 탐욕과 무능함을 개탄하고, 백관들에게 근검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04 윗글의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들려주기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 ② 소질에 맞는 일을 권장하고 있다.
- ③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돌보고 있다.
- ④ 솔선수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학업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

※ <보기>는 윗글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임진왜란 직후에 국사(國事)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정사에 힘쓰지 않고 사리사욕(私利私慾)만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집안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에 빗대어 통렬히 비판한 작품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그렇게 무참히 당하고도, 그러한 현실을 수습하려 들지 않는 신하들의 모습을 비유적 수법으로 잘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에서 지은이가 관료 사회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유교적인 이상 사회를 재건하려는 숭고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05 위 <보기>를 참고할 때, ㉠~㉤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안부
- ② ㉡ : 나라
- ③ ㉢ : 벼슬자리
- ④ ㉣ : 벼슬아치
- ⑤ ㉤ : 재능

06 위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제2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제1회

01 ③ 02 ③ 03 ③ 04 ⑤ 05 ① 06 ⑤

01 ③

● 문항 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인물 머슴 대길이에 대하여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라며 예찬하고 있고 (나)는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늘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며 섬진강을 의인화시켜 예찬하고 있다.

● 오답 배류기 ① (나)에 섬진강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표현은 없다. ② (나)는 대상인 섬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속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대길이에 대해, (나)의 화자는 섬진강에 대해 연민의 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⑤ (나)는 생활 속의 행복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02 ③

● 문항 분석 시구의 의미나 기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㉘를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바다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호연지기를 키운다는 의미가 된다.

● 오답 배류기 ① 동네길을 잘 치우고 이슬도 없앤다는 행위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길은 공동체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잘 쓸고 닦는 것은 공동체에 바람직한 일이다. ②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 아이 세상에 눈 뿜지요.'라는 구절에 화자가 글을 잘 읽어 세상일을 잘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적절하다. 주룩주룩은 의태어이다. ④ '보라는 명령문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화자의 신뢰감을 잘 드러낸다. ⑤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이라는 구절을 보면 퍼 가도 마르지 않을 만큼 넉넉한 섬진강의 속성을 제시한다. 도치법은 강조법의 하나이다.

03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등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쌀밥과 숯불은 우리의 삶과 친근한 것이어서 거리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

다.

● 오답 배류기 ① 섬진강, 영산강, 지리산, 무등산 등을 의인화하고 있어 친근감을 준다. ②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묻는 말에 지리산, 무등산 등이 그렇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민중이란 약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이름 없이 미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04 ⑤

● 문항 분석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청자가 머슴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학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 오답 배류기 ① 시적 화자만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너희들의 재주를 헤아려 서로 서로 말아라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너희들을 데리고 행여 추운가 굶주리는가 염려하며, 죽조반 아침저녁을 다 해다가 먹였는데'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05 ①

● 문항 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㉚과 관련된 '처음에 조부모님께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에 ~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㉚은 일반적으로 내력이라는 의미가 되고 <보기>를 고려하면 국가와 관련되어 역사란 의미가 된다.

● 오답 배류기 ② 국토의 의미이다. ③ 밥그릇의 크기는 벼슬의 높고 낮음에 관련된다. ④ 나라와 관련되므로 나라일을 하는 사람의 의미이다. ⑤ 재주와 재능은 동의어이다.

06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는 구절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㉞에서 '화살을 전혀 없고'라는 구절의 화살은 임진왜란을 비유하며 '옷밥만 다루는가'는 현실을 수습하려 들지 않는 신하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 오답 배류기 ①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큰 일을 할 수 없음을 나무라고 있다. ③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고 있다. ④ 먹고 살 일을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다.

(가) 머슴 대길이, 고은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갸거겨’를 배운 줌 모자란 듯한 화자는 대길이의 덕성을 늘어놓는다. 우선 대길이의 신분은 머슴이다. 낮은 신분의 민중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기는 강한 힘과 ‘밤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는 이해심, ‘이른 아침 동네 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우는 이타심 등에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 즉 학식까지 갖춘 위인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만큼의 위엄과 ‘흙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 보’는 호연지기도 지니고 있으며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게 할 만큼 자신을 고난 속에 던져 놓는 실행적인 힘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르’게 되는 현실에 대한 경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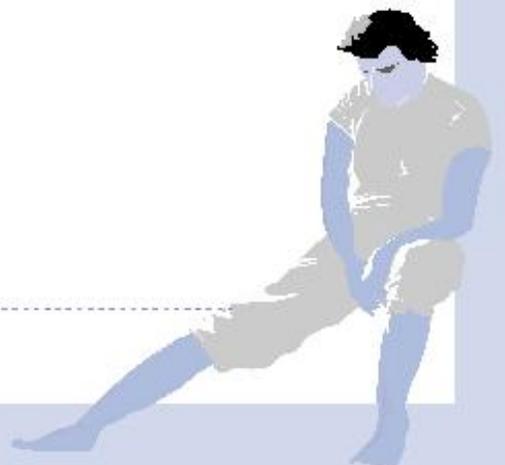
이러한 대길이는 화자에게 불빛 그것도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 새우는 불빛’으로 자리매김한다. 민중의 희망이요, 구원자요, 보호자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다.

(나) 섬진강, 김용택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는 말과 더불어 시적 화자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묘사한다. 그 섬진강은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는 민중의 속성을 지닌 것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생명의 물을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주는 등 힘 없는 존재를 감싸 안는 자애로운 존재이다. 또 그것은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빼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뚱뚱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포용력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라는 말에서는 섬진강의 당당함마저 드러나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에서는 자연의 힘찬 생명력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관이 연출된다.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라는 말의 반복은 민중을 위해(危害)하는 세력에 대한 점잖은 경고가 될 터이다.





나라 일을 농사일에 비기어 백관들의 탐욕과 무능함을 개탄하고, 백관들에게 근검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현대어역을 읽어 의미를 파악해 두자.

〈전문 현대어역〉

제 집 옷과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 소식(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처음에 조부모님께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에, 어진 마음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집을 지어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논밭을 기경하니, 올벼논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큰 땅이 되었다.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하였다. - 집안의 내력

저희들이 각각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새 머슴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서, 밥그릇이 크거나 작거나 입은 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에 반목을 일삼느냐? 너희들 일 아니하고 흉년조차 들어서,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옛그제 강도를 만나 가산이 탕진하니, 집은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살이를 어떻게 해서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 머슴들의 반목으로 인한 폐해

너희는 젊다 하여 생각하려고 아니하느냐? 한 술에 밥 먹으면서 항상 다투기만 하면 되겠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사를 짓자꾸나. 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옷과 밥을 인색하게 하라?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갈아서 벼를 심어 던져두고, 날카로운 호미로 김매기를 하자꾸나. 산에 있는 밭도 잡초가 우거지고 무논에도 풀이 무성하다. 도롱이와 샷갓을 말뚝에 씌워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벼 곁에 세워라. 칠월 칠석에 호미 씻고 기음을 다 맨 후에, 새끼는 누가 잘 꼬며, 섬은 누가 엮겠는가? 너희들의 재주를 헤아려 서로 서로 말아라. 추수를 한 후에는 집 짓는 일을 아니하라?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움은 네가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고 살 일을 깊이 생각하려무나. 멍석에 벼를 널어 말린들 좋은 해를 구름이 가려 햇볕을 언제 보겠느냐? 방아를 못 찢는데 거칠고도 거친 올벼가, 옥같이 흰쌀이 될 줄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 머슴들의 각성을 촉구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 살고자 하니, 옛그제 왔던 도적이 멀리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귀와 눈이 없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방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옷과 밥만 가지고 다투느냐? 너희들을 데리고 행여 추운가 굶주리는가 염려하며, 죽조반 아침저녁을 다 해다가 먹었는데, 은혜는 생각지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사려 깊은 새 머슴을 어느 때에 얻어서, 집안 일을 맡기고 걱정을 잊을 수 있겠는가? 너희 일을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도다. - 사려 깊은 새 머슴을 기다림

서해석역
노동이끼

